

지역 소식통

권익현 부안군수,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지 현장 방문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7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부안군 관내 산사태 피해지를 방문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7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부안군은 지금까지 산사태 3건(0.75ha, 산림작물 3건/0.5ha 등 총 6건의 산립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토사유입으로 인해 주택 담장 파손, 농경지 침수 1ha 등의 피해를 입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의 회 이현기 부의장과 함께 산사태 피해 현장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산립 피해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고,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 확대와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여 산립재해로부터 안전한 부안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농기센터, 건설기계 면허증 교육신청자 모집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삭기, 스카워더, 지게차)의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모집한다. 3톤 미만의 소형 건설기계가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교육과정으로,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미만 농업인이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675명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기계에 대한 안전사용 노하우와 작업요령을 익히는데 큰 역할을 해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손님맞이 준비 완료

전 세계 청소년 1만명 방문 예상... 대형 홍보탑 세우고 상하농원·습지트래킹 등 체험활동

고창군에 전 세계 청소년 1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시전체가 들쭉날쭉하고 있다. 대형 홍보탑이 세워지고, 거리 곳곳에 환영 가로기가 내걸리면서 손님맞이 준비가 마무리됐다. 지난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새만금 세계잡버리 행사'를 일환으로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1200여명씩 각국의 청소년들이 지역을 방문한다. 대회 기간 중 고창을 찾는 누적 방문객으로 최소 1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먼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사전 관광프로그램으로 4개국(캐나다, 아이슬란드, 폴란드, 파라과이) 스카우트 대원들과 관계자들이 고창을 찾는다. 이들은 상하농원과 운곡습지, 고인



돌공원 등을 방문해 치즈만들기와 습지트래킹 등 체험활동을 경험하며 '꿀잼도시' 고창을 알아갈 예정이다. 새만금잡버리가 본격 개막하는 8월 2일부터는 고창읍성과 선운사에서 집중적으로 영의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서로 어울리며 음성 성곽길을 걸으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또 선

운사에서는 다도체험과 템플스테이, 숲 어드벤처 등을 통해 고창만의 재미와 감동을 전한다. 특히 고창군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지역학생 연계 프로그램(8월 2~4일) 등이 운영되면서 고창군 관내 청소년들과 세계각국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창군은 고창경찰서, 고창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재미있는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종 점검작업을 진행 중이다. 무더위와 폭우를 피할 수 있는 실내공간 확보와 대형현막 설치 등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 위해 노력”

정읍시, '시민의견 듣는다'... 내달 25일까지 시민참여 맞춤형 정책 공모

정읍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정책발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는 내달 25일까지 시민 복지와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민참여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장 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참여 열린시장'이라는 시정목표를 실천해 주민 편의 향상과 주민맞춤형 정책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다. 공모는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등 절차를 거쳐 시 정책에 반영된다.

공모주제는 특별주제와 일반주제로 나뉜다. 특별주제는 정읍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이고, 일반주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개선 또는 시행해야 할 정책이다. 응모 방법은 정읍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정읍시 총정로 234 정읍시장 기획예산실) 또는 팩스(063-539-6504)로 제출하거나 이메일(moony0427@koreakr)로 전송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통해 특별주제 분야에서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 일반주제 분야에서 최우수 1명과 우수 1명, 장

려 3명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시상금(정읍시당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정읍시 홈페이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화수 정읍시장은 "시민 스스로 우리 시의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제안 공모를 통해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정부세종청사 방문 국가예산 확보 총력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부안 반계 유형원 기념관 건립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실화를 대표하는 반계 유형원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부



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반영을 당부했다. 또 용적·백석지구 논공단지 배수개

선사업과 양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반영,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보관을 위한 국산 밀 전용 비축시설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건의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부안지역 피해 상황을 적극 설명하고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배수개선사업의 예산 반영을 강조했다. 금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프리마켓과 함께하는 여름 물놀이장

정읍시, 8월 2-6일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광장서 운영

정읍시는 시민들이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오는 8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광장에서 물놀이장과 공동체 프리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물놀이시설에는 워터슬라이드 3대와 에어바운스 4대가 설치된다. 또 탈의실과 그늘쉼터 등 편의시설도 마련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운영하며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정읍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들을 물놀이시설마다 배치할 계획이다. 주말 운영에는 안전요원을 2배 이상 늘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놀이장에 공급되는 물은 수



돛물을 이용해 1일 1회 환수와 매시간 수질 점검을 해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장원 지역협력과장은 "정읍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운영기간 동안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방문의 해 맞아 '한여름밤의 페스타' 열려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복분자 유원지(부안면 용산리 581번지 일원)에서 물놀이와 음악 공연을 겸한 '한여름밤의 페스타'를 열고 있다. 군은 최근 복분자유원지에 연못과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설치를 완료했다. 또 주변에는 미니 모래언덕 등을 만들고, 곳곳에 야자수와 밀짚 피라솔, 리안 소재의 선베드를 배치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물놀이 시설과 어린이 보트는 28일부터 운영돼 아이들에게 무한한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여름이 내린 유원지에는 예쁜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서 낮과는 또다른 낭

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연못과 야자수에도 조명이 들어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일품이다. 8월 5일 오후 7시에는 여름밤의 블루스' 신촌블루스와 전영록, 8월 12일 오후 7시에는 여름밤의 락 윤성with 아프리카밴드, 건아들 밴드 등 유명가수와 함께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매주 토요일 열기구 체험과 팻카페, 미니풍물원 등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다양한 세대의 관객들이 한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히며 힐링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복분자 유원지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전국 최고 품질 '건고추 장터' 개장

고창군은 본격적인 고추 출하시기에 맞춰 '건고추 장터'를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신규 조성된 '고창군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개장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건고추 장터는 생산농가와 상인, 소비자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직거래 장터로 생산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품질의 고추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자리다. 또한 건고추 장터 개장으로 우수한 품질의 고창 고추를 홍보하고, 유통 확대하여, 고창 고추 시장 활성화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장터는 고

창 장날인 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에 맞춰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며, 부대시설과 고객쉼터를 제공해 농가와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군은 또 건고추 장터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예산 5억원을 확보해 판매 시설 신축 등 건고추 장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건고추 장터를 통해 고추 생산농가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상인과 소비자들은 우수한 품질의 건고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